

# 불법 저작물 링크 규제 강화 ‘개정 저작권법’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나 이른바 ‘링크 사이트’는 콘텐츠 업계의 오랜 골칫거리였다. 이들은 저작물을 자신의 서버에 직접 올리지 않고 해외 서버의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만을 모아 제공하기 때문에, 그 링크 제공 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계속 문제되어 왔다. 그런데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이 이 문제에 관해 입법적으로 답을 제시했다.

먼저 종래의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링크에 대해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 페이지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전송·전시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등).

또 “링크 행위가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의 방조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

았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이러한 태도는 2021년에 한 차례 변경됐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링크 행위가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링크 행위자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한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방조’였기에 정범인 업로드의 범죄가 전제되어야 했고, 반대의견이 지적됐듯 입법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개정 저작권법은 이를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 저작권법은 제124조 제1항에 제4호와 제5호를 신설해 ▲불법복제물 임을 알면서 그 연결정보(링크)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나 SNS 게시판·대화방 등을 운영하는 영리목적의 행위 ▲불법복제물 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그 연결 정보를 위 사이트 등에 영리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각각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

로 규정한 것이다. 방조가 아니라 침해로 의제 되므로 정범의 범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어졌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저작물 링크 게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강화됐다. 개정법은 제125조 제4항을 신설해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판단 시에는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직접 침해에 대한 벌칙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

결국 개정 저작권법의 핵심은 ‘불법복제물’이라는 인식과 ‘영리목적’에 있다. 일상적인 링크 공유까지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콘텐츠를 다루는 사업자라면 자사 플랫폼의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 이러한 링크가 쌓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 운영 방식이 영리목적으로 평가될 여지는 없는지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 눈치보는 ‘연금개혁’



기지 수첩

안 승 진  
(금융부)

정부가 최근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통해 기초연금 개혁의 방향성을 공개했다. 소득 구간 하위 0~45%에는 올해 35만원이었던 월 지급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늘리고, 소득 하위 45~70% 구간에는 내년도 지급액을 동결하는 내용이다. 소득 하위 70%의 고령자에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며 기초연금의 개혁 방향성을 제시했다. 인구구조 변화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논의된 것은 고소득 수급자의 연금액을 줄이

고, 저소득 수급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하후상박’을 제시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공개된 개편안에는 ‘하후’만 남았다.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들에 대한 소급적용이 없을 것이라는 예고에도 기초연금 수급을 앞둔 중·장년층의 반발이 거셌고, ‘표심’에도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연금재정 절감을 위해 추진됐던 개편안은 결국 연금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가 주도해 연금개혁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제도의 개혁 필요성은 국민연금의 최초 도입 이후 계속됐지만,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권의 외면을 받았다. 연금개혁이 뒤로 미뤄지는 동안 미래세대의 부담은 커졌고,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처럼 ‘반쪽짜리’ 연금개혁이 계속된다면, 연금제도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민주당 대표 재임 당시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우리 당이 양보하겠다”라며 연금개혁을 밀어 붙였다. 이듬해인 2025년에도 연금개혁 결과에서 일부 내용이 빠진 것을 두고 “청년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이 아닐텐데도, 연금개혁을 밀어 붙이는 추진력은 약해진 것이다.

정치인이 표심을 의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연금개혁을 위해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썸법’보다 ‘미레’를 우선해야 한다. 국회는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해 연금개혁 논의에 나서야 하며, 국민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정부는 자체적인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환기하고 다수가 납득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연금개혁은 다수가 동의할 때에만 성사될 수 있다.

/asj1231@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4일 (음 8월 4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모든 부귀영화가 내 것입니다. 60년생 지금까지 해왔던 자제로 계속 유지하세요. 72년생 업무에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84년생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됩니다.



소

49년생 즐거운 날을 보내게 됩니다. 61년생 더 가지려 말고 현재 것을 잘 간수하세요. 73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85년생 인간관계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로랑서

50년생 모든 일에 자중하세요. 62년생 고생한 보람도 없이 이윤도 남지 않게 됩니다. 74년생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쓰세요. 86년생 가는 곳마다 사고가 기다리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끼

51년생 조금 더 조심해서 행동하세요. 63년생 되도록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세요. 75년생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얽혀만 가게 됩니다. 87년생 되도록 주변에 쉽게 휩싸이지 마세요.



조

52년생 조그만 소망은 이루어지니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64년생 주위사람들 모두가 귀하의 편을 들어줍니다. 76년생 재물은이 길합니다. 88년생 구설수를 조심하세요.



뱀

53년생 좋은 사람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65년생 현재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77년생 다른 일은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89년생 이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말

54년생 건강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66년생 인간관계가 많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78년생 안정된 생활이 이어질 것입니다. 90년생 칭찬이나 혹은 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

55년생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넘깁니다. 67년생 기대했던 결과는 좋을 것입니다. 79년생 주변의 사람들과 충분히 의논하고 실천에 들어가세요. 91년생 반갑고 좋은 소식이 기대됩니다.



원숭이

56년생 자신들에게 안부 전화하도록 하세요. 68년생 친척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일을 쉽게 해결합니다. 80년생 항상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92년생 일에 중심을 잘 잡으세요.



닭

57년생 방식을 바꾸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69년생 약점이 들어 날 수 있습니다. 81년생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경쟁자 나타납니다. 93년생 금전, 직장 이성운 모두 불리합니다.



개

58년생 조심 조심 또 조심하세요. 70년생 말 실수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82년생 의외의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94년생 지금까지의 삶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돼지

59년생 사소하는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세요. 71년생 의외의 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83년생 금전운은 대체로 무난합니다. 95년생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 김상회의四季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정치권과 언론에서 개헌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개헌이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최고 법인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국가의 틀을 다시 만드는 작업인 만큼, 개헌 논의는 나올 때마다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사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 헌법은 한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다. 국가가 만드는 일반 법률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으며, 국가기관의 권한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법률을 쉽게 바꿀 수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헌법은 일반 법률보다 개정 절차가 까다롭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이다. 경성은 말 그대로 딱딱하다는 뜻이고, 연성은 부드럽다는 뜻이다. 경성헌법은 일반 법률보다 바꾸기 어렵게 만든 헌법을 말한다. 경성헌법을 개정하려면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 특별한 의결 정족수를 요구하거나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식이다. 반대로 연성헌법은 일반 법률과 비슷하거나 크게 다르지 않은 절차로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을 말한다. 헌법의 내용을 바꾸는 일이 상대적으로 쉽다. 우리나라 헌법은 경성헌법에 해당한다. 절차에서 먼저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제안할 수 있다. 개헌안이 제안되면 일정 기간 공고를 거쳐야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 되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국민투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개헌이 확정된다. 헌법에 대한 지식을 갖춰놓으면 개헌에 관한 뉴스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다. 헌법을 알면 개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도 조금은 더 보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윤휘중 |
|----------------------|---------------------------------|------|-----|
| 인쇄인                  | 중앙일보(주)                         |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94호     |      |     |
|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98호     |      |     |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한바퀴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퍼즐 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9 6 1 8 2 7 9 4

8 1 9 7 1 9 2 8 6

7 2 4 8 6 9 8 9 1

6 8 8 2 9 1 2 7 9

9 7 2 4 9 8 6 1 8

9 4 1 6 7 8 8 2 9

1 8 7 9 2 6 9 2 8

4 9 9 8 8 7 1 6 2

2 6 8 9 1 4 9 8 7

9 2 4 8 6 9 1 7 8

8 7 9 9 1 8 2 6 4

1 8 6 7 4 2 8 9 9

4 9 2 8 7 1 9 8 6

8 8 1 2 9 6 7 2 9

9 6 7 2 9 8 8 4 1

6 9 9 1 2 7 4 8 8

2 4 8 9 8 9 6 1 7

7 1 8 6 8 4 9 9 2